

<문제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의 관계’ 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제시문 (가),(나),(다) 셋의 차이점은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의 측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인 (나)(다)와는 다르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논지한다. 로마 사회의 노예제도에서의 노예들의 역할은 운명적이다. 그러나 노예나 그의 소유주 양쪽 다 운명으로 맡게 된 역할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것이 개인의 행복의 권리를 침해할 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노예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불행이나 행복은 타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행복 증진을 위해 타인인 아내의 행복을 침해한다. 여기서 (가)의 노예와는 달리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을 인지하고 불합리적인 세태를 거부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와 (다)의 논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나)와 (다) 역시 차이점을 보이는데 개인과 타인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다)는 공리주의를 통해 개인들의 총합인 공동체의 행복은 곧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라는 논지를 보인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행복 증진 혹은 감소에 따라 판단하여 행위의 행동 여부를 택한다. 이때 행위의 주체가 구성원인 개인 혹은 타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 이는 (나)에서 강조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유관함에 대한 의견과 일치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총합이 공리라는 측면에서 공동선의 행복을 강조하는 (다)는 개인의 불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에서 개개인에게 주어진 행복이라는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866자)

<문제2> 제시문(나)와(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나)는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해 타인의 불행을 심각히 여기지 않는 허생과 이로 인해 행복을 침해당한 허생의 처를 통해 행복도의 차이가 큰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제시문은 개개인 간의 행복의 정도 차이는 인정하는 입장을 띤다. 허생의 처가 한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을 유발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더 이상적인 사회로 본다. 행복도 차이의 심화는 불행해진 타인의 박탈감을 유발한다. 이는 곧 행복도 차이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띠 가능성을 가진다.

(라)에서의 국가군 B는 국민의 행복도 평균은 높지만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가군 C는 B보다 평균은 낮지만 표준편차가 작아 개개인의 행복도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나)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군은 구성원간의 행복이 서로 침해당할 일이 덜 발생할 C국가군이다.

반면 (다)는 공리주의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의 행복도 차이보다는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도의 총합을 중요시함을 주장한다. 공동체의 행복도가 크다면 개인이 행복권을 침해받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용인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공동체의 행복도의 최대화는 곧 개인의 행복도 보장되는 사회의 분위기를 건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국가군 C는 행복도의 평균이 낮아 개인 차이가 적더라도 (다)의 입장으로는 이상적이지 못한 국가군이다. 대조적으로 국가군 B에서는 개인 차이가 비교적 크지만 산술평균이 높다. 산술평균이 높은 것은 국민 전체의 행복도의 총합이 높은 것이므로 B가 (다)의 이상적 국가군이라고 할 수 있겠다. (930자)

2015모의 인문